

기생충과 구충제



■ 자료제공/ 건강한 이웃 편집부

봄을 타며 떨어지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사람들은 싱싱한 채소들을 많이 찾는다. 이렇듯 날 음식을 많이 먹게 됨으로써 염려스러운 점이 바로 기생충이다.

【기생충】

알의 종류로는 사람과 동물 기생충알이 있고, 자충 포낭(애벌레가 들어있는 알)과 미성숙란이 있다. 유해성으로는 사람과 동물 기생충알의 미성숙란은 인체에서 부화하지 못한 상태로 배설되거나 소화흡수되므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사람 기생충알로 자충포낭(애벌레가 들어있는 알)은 여러 개가 인체에 들어올 경우 구토, 복통, 소화장애, 장질환 등을 일으키므로 해롭다. 동물 기생충알로 자충포낭(애벌레가 들어있는 알)으로 돼지 회충알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고양이 회충알은 1~2주 안에 죽어 없어지지만 일부는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 다소 해롭다.

【구충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구충제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알벤다졸 400mg제제이고, 같은 계열의 플루벤다졸 500mg, 메벤다졸 100mg이 있다. 이들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아메리카구충 분선충 등의 기생충에 효과가 있어 종합구충제라 할 수 있다. 구충제의 작용 원리는 한마디로 기생충을 굶겨 죽이는 것이다. 기생충은 우리 몸속의 영양분을 뺏어 먹고 사는데, 그 기생충이 몸 속 영양분인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구충제가 막는 것이다.

구충제 복용법은 식사와 관계가 없고, 정제는 씹거나 삼켜서 먹는다. 현탁액 제제도 나온다. 특히 고지방식사와 함께 약을 먹게 되면 약의 흡수율이 4~5배까지 높아진다. 성인 소아 모두 같은 용량으로 먹는다. 아이나 노인에게 특별히 더 심한 부작용이 있

다는 보고는 없으나, 1~2세 미만은 충분한 실험이 되어 있지 않아 먹지 않으며 임신부에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일부 동물에서 기형 유발 능력이 있고 배아독성이 있음이 보고). 기임여성일 경우 임신을 예정하고 있다면, 생리기간 동안 복용한다. 간경화증 환자는 먹지 않아야 하고 간질환이나 신경유구낭미충증이 있는 환자는 부작용 가능성이 더 높다.

복용량은 일반적인 종합구충의 목적으로 복용할 때는 알벤다졸제제 하루 1번 400mg, 플루벤다졸 제제 하루 1번 500mg을 복용한다. 예외로 분선충증에는 알벤다졸제제 1일 400mg을 하루 1번 3일간 복용한다. 특히 요충은 사람의 몸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1~3주후 추가치료가 필요하다. 이부자리나 속옷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속옷을 삶고, 이불이나 요를 햇빛에 말리는 것이 필요하다. 2세 이상 소아의 요충증에는 알벤다졸 400mg 1/2정(200mg) 투여, 7일 후 반복투여 한다. 부작용으로는 드물게 열이나 피부반응, 목 따가움, 피곤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더 낮은 빈도로 복통, 두통, 설사,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구충제와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가족 전체가 치료받아야 △사용하고 있는 이불, 의류 등도 삶거나 소독해야 △감염재발 방지 △임산부는 복용 금지 △정제는 씹거나 소량의 물로 복용 가능, 식사 중단 또는 하제를 쓰는 등의 특별한 과정 필요 없고, 치료 2주후 검사 통해 박멸되지 않았으면 각 기생충에 따라 2차 투여 실시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봄 가을(계절별 감염률 크기 때문)에 먹어 두는 것도 정설임. △최근에는 2~3개월에 한번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학설도 있다. Y